

나주시 '남파고택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청장상 수상

문화재청 주관, 지역문화재활용 사업 시상식 '고택·종갓집 활용분야'

종갓집 내림음식·읍성권 투어 연계 등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호평

나주시가 올해 남파고택에서 추진한 '명사와 함께하는 고택 스테이-남파고택' 사업이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0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나주시는 최근 대전전통나래관에서 열린 '2020년 지역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고택·종갓집 활용분야 우수사업 선정에 힘입어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 각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정책방향 및 우수사례 공유에 따른 사업 이해도 제고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문화재 야행 36곳, 생생문화재 159곳,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113곳, 전통산사문화재 38곳, 고택·종갓집 39곳에서 진행됐다.

고택·종갓집 활용분야 우수사업에 선정된 '명사와 함께하는 고택 스테이-남파고택'은 전통자원과 문화적 가치를 콘텐트화해 목사고을 나주의 멋과 맛, 그리고 흥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남파고택(南坡古宅·국가민속문화

재 제263호)는 호남지역 대표적 양반 집으로 현재 살고 있는 박경중의 6대조가 터를 잡고 4대조 박재규가 1917년(바깥사랑채 1932년) 완공한 고택이다.

단일 건축물로는 전라남도 최대 규모를 갖춘 개인 주택이자 관아 형태를 모방하고 있어 집안의 내력과 함께 시대적 특징을 잘 간직해 민족학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시는 남파고택 종갓집 내림음식과 전통생활문화, 고택 주변에 위치한 읍

성권 문화재 투어 등을 연계시킨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좋은 평가를 얻었다.

남파고택 관계자는 "문화재청 우수사업 선정을 발판삼아 내년에는 체험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나주시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국민들에게 알려 전라도의 중심이자 목사고을 나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내년도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서 이번 남파고택 스테이 등 총 5건의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슬로건으로 목사고을



나주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문화재활용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비대면 농업 교육 평가 '우수 기관상' 수상

농업인대학 등 비대면 교육 운영 사례 호평

화순군이 농촌진흥청 주관 2020년 비대면 교육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추진한 비대면 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 확산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화순군은 올해 초부터 집합 교육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고민해 왔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가장 먼저 농업인대학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농업인대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했고, 2개 과정 53회 강의 중 28회를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품목별 농업 기술교육·강소농 전문 교육·집목 요리조리 교육 등 농업인 교육 8과정 24회, 화순음식 온라인 전시회(1회)를 비대면으로 추

진했다.

12월 30일까지 강소농 전문교육 10회, 품목연구회 역량 강화 교육 8회를 비대면으로 운영, 올해 교육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교육과정별 밴드를 개설해 교육생 모집, 동영상 교육, 시험을 밴드에서 추진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토론식 교육이 필요한 교육과정은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해 실시간 쌍방향 교육을 추진, 강사와 수강생 간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내

실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화순군 비대면 교육은 시기별 품목별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 참여율 제고, 농업인의 온라인 학습 역량 향상, 교육 성취도 제고 효과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상을 받게 됐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021년도 1월부터 추진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유튜브, 밴드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승철기자

곡성군, 죽산마을 화전놀이·강빛마을 어울림마당 내년 농촌축제지원 공모 선정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도 농촌축제지원사업에 응모해 죽산마을 화전놀이와 강빛마을 어울림마당 축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축제지원사업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주체의 축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서면 및 동영상 평가를 통해 전국 81개소 중 총 3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전남에서는 3개소가 선정됐는데 곡성군에서 2개소가 선정된 것이다.

공모에 선정된 2개 마을은 각각 1천만원씩(국비 50%, 군비 50%) 최대 5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역량강화 및 컨설팅, 축제 프로그램 운영, 시설 임차비, 홍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 자체기금으로 행사를 개최하느라 자금을 겪었던 지역농촌축제에 단비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군, 식품·공중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분야 우수기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추진·군민안심식당 운영 높은 평가



담양군이 2020년도 전라남도 식품·공중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분야 업무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관왕'을 달성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1월 안전한 식품·공중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음식문화 인식 개선을 도모코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공중 안전관리 강화, 음식문화개선 및 코로나19 예방 등 총 40개 항목을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했다.

업무평가결과 담양군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 공중위생 업소 관리 등 식품·공중위

생관리 분야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 군민안심식당 등 음식문화개선 분야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8백만 원과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특히 담양군은 음식문화개선 분야에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식약처로부터 32개 업소가 위생등급제를 지정받았으며 6월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심식당' 운영으로 40개소에 수저지, 투명마스크,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는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식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중간 설명회

곡성군은 지난 11일 기차마을 로즈홀 세미나실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중간 설명회를 추진단, 주요작목 및 액션그룹 대표, 중계단의 자문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곡성군 지역의 강점을 살려 친환경 농산물 육성, 디톡스 식품과 테라피 체험을 개발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제공할 서비스 등을 선보였으며, 탄탄하고 건실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과정에 다양한 관련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추진단내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생산자, 액션그룹, 추진단 등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농촌체험활동가 등 청년사업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지역자산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 등 총 7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